

‘형형색색 국화 만발’...월출산 국화축제 열린다

오늘부터 내달 16일 기찬랜드 일원

‘품격 섬, 꽃으로 만나는 가을’ 주제

그라스류 등 23종 20만 송이 전시

가을의 정취가 짙어지는 월출산 자락에 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30일부터 11월16일까지 월출산기찬랜드 일원에서 ‘2025 월출산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품격 있는 섬, 꽃으로 만나는 가을’을 주제로 삼은 올해 행사는, 전시에 초점을 맞춰 준비됐다.

주 행사장인 월출산기찬랜드 곳곳에는 조형물, 분재국, 모형작, 그라스류 등 23종 20만여점의 국화가 전시돼, 산책하며 즐기는 가을 정원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형 조형물은 ‘마한문’으로 월출산의 기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대 마한의 심장인 영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 상징물과 함께 지난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고려침성대’, ‘하늘아래 첫부처 마애여래좌상’도 재전시돼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한다.

전시장은 ▲핑크몰리와 파파스로 꾸민 ‘그라스권역’ ▲포플러원 (F1) 레이싱카와 캐릭터 조형물이 배치된 ‘어린이권역’ ▲국화연구회원과 지역 농가가 함께 꾸민 ‘분재전시권역’ 등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암군은 영암군민 참여 국화축제의 기조를 올해도 이어 전시작품을 마련했다.

전시에 쓰인 국화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계약 재배한 지역 화훼농가들이 1년간 정성을



2024 월출산국화축제 개막식에서 어린이합창단과 내빈들이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영암군 제공>

다해 길러낸 작품들이고 이들 농가는 전시 연출에도 참여했다.

국화축제장에는 영암 농특산물 부스가 운영돼 영암 농가 등에서 재배·가공한 지역 농산물

과 특산품이 판매된다.

11월15~16일 이틀간은 한우·한돈·가금 등 축산물 할인판매장도 열려 관광객들에게 경제적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

성화, 로컬푸드 소비 촉진 등도 모색된다.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화장실 정비, 종합안내소와 의료 지원본부 운영 등도 마련돼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월출산 국화축제는 영암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이다. 올가을 월출산 국화 향기 속에 따뜻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은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11월 특별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에 방문하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의 지역화폐 ‘월출페이’를 지원하는 행사에 추가 지급 혜택을 더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이벤트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아열대농업관 이색 체험 인기

바나나 따기·열대과일 전시 등

함평군은 29일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인기 전시공간인 ‘아열대농업관’이 이국적인 분위기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열대농업관은 함평군이 직접 재배한 바나나·파파야·망고·미니 파인애플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열대우림 속을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전경을 자랑한다.

입구에는 하귀 열대과일 ‘격(계육)’으로 만든 터널형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내부에는 스타후르츠·파파야·바나나 나무 등이 어우러져 열대 정원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또 곳곳에 배치된 원숭이 인형과 투칸 조형물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말마다 진행되는 ‘바나나 따기 체험’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체험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되며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회차당 30명씩 선착순 접수한다.

직접 바나나를 수확하며 열대작물의 생태를 배우는 등 ‘에듀테인먼트(교육+체험)’ 프로그램



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아열대농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인기 전시관”이라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에 1만8천여명 찾아

해양치유·전복식식 등 인기

‘완도왔섬, 치유됐섬’을 주제로 열린 ‘2025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가 1만8천여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4~26일까지 사흘간 완도 일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완도의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섬과 치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을 감성 포토존과 체험 마당, 완도호랑이가시 체험존, 독서문화축제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홍보관에서는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생 네 컷’ 이벤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복 버터구이 무료 시식회와 전복 판매

관을 운영해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최경주 광장에서는 퍼팅 이벤트와 ‘행운 봉잡았섬’ 등 경품 행사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타워 주변에는 4만 본의 국화가 전시돼 가을 정취를 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완도수목원의 ‘그린 숲 페스티벌’ ▲생일면 금곡해수욕장의 ‘멍 때리기 대회’ ▲청산면의 ‘봉송아 물들이기 체험’과 ‘은하수 투어’ ▲신지면의 ‘맨발 걷기 페스티벌’ 등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한 자연과 해양치유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내년에는 완도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에서 ‘빈집의 재발견’ 즐겨 보세요”

내달 1일 하멜기념관서

공연·캠핑 체험 등 다채

강진군이 오는 11월1일 병영면 하멜기념관 일원에서 빈집 재생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빈집의 재발견’을 주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체험·캠핑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오전 10시30분, 빈집과 지역 재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으로 막을 올린다.

강연에서는 빈집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재생의 의미를 공유하며, 행사 전반에서는 최근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한옥체험업이나 감성 펜션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빈집 재생과 지역관광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공감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는 감성 통기타 공연, 가족 참여형 레크레이션, 버블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 목공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푸

드트럭, 농특산물 이동장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체험의 장을 제공 할 예정이다.

특히 하멜기념관 뒤편에는 ‘하멜 감성 텐트촌’이 조성돼 1일 캠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야외 영화 상영회가 열려 강진만의 이색적인 체류형 관광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빈집이라는 일상 공간을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무대로 재해석한 감성형 축제”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진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바다 향 명품 채소’ 해남 세발나물 출하

비타민·식이섬유 풍부

해남군의 특화작목인 세발나물 수확이 본격화됐다. <사진>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부터 첫 출하가 시작된 세발나물은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신선 채소로, 가늘고 길게 자란 잎 모양이 새의 발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주산지는 해남군 문내면 예락마을 일대로, 18ha 규모에서 연간 1천74t 이상이 생산된다.

이를 통해 약 20여원의 연소득을 올리며 지역 농가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금기가 남아 있는 간척지와 해안에서 자생



하는 세발나물은 원래 바닷가 주민들의 겨울철 별미였으나 2006년 해남에서 국내 최초로 재배

에 성공하면서 전국적인 인기 채소로 떠올랐다.

세발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겨울철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채소로 꼽힌다. 또한 해변에서 자라 갈슘·칼슘 등 천연 미네랄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천연 염료 덕분에 별도 간을 하지 않아도 생채나 샐러드, 데친 나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해남 세발나물은 친환경 무농약 재배로 품질이 균일하고 외관이 깨끗하며 식감과 저장성이 뛰어나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군은 세발나물의 저장로리·고미네랄·항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 기술 연구와 신기술 보급을 통해 해남 세발나물의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일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도 산불대응’ 3년 연속 수상

영광군은 29일 “전남도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과 2024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우수상을 받으며 산불예방 분야의 모범 자치단체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2024년부터 2년 연속 산불 발생 ‘0건’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예방 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대응체계 ▲산불진화 역량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영광군은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내실화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불 취약 시기에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산통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3년 연속 수상은 산불예방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불 없는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지역 금융기관과 고향사랑기부 협력

신안군은 29일 “전남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수협,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농협, 임자농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 금융기관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업사업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신안군이 주도한 상생 모델이다.

단순한 기부금 유치에서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 및 홍보 캠페인 추진 ▲ESG 경영 관련

사회공헌활동 협력 ▲고향사랑기부금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이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사업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